



유럽 방카슈랑스시장의 현황과 전망

이소양 연구원

■ 유럽보험연합(Insurance Europe Federation, 이하 IE)에 따르면, 유럽의 생명보험 방카슈랑스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특히 서유럽 국가의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이 동유럽 국가에 비해 높음.

- 서유럽 국가의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은 포르투갈이 77.5%(2011년)로 가장 높고,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이 각각 73.1%(2011년), 69.1%(2010년), 61.0%(2011년) 수준임.
- 한편, 독일(19.8%, 2011년)과 영국¹⁾의 경우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²⁾이 모두 20% 미만임.
 - 독일의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이 낮은 원인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보험회사와 단순한 판매제휴를 체결하는 등 보험회사와 은행의 통합 수준이 낮고 신규 상품 도입의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분석됨.³⁾
 - 영국의 경우 독립금융자문사(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이하 IFA)가 은행에 비해 채권 또는 주식과 연계된 생명보험 상품을 더 저렴하게 공급하고 수준 높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 동유럽 국가 중 폴란드(30.0%, 2011년)를 제외한 루마니아(13.6%, 2010년), 크로아티아(19.3%, 2011년)의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은 생명보험에 비해 낮지만 상승하고 있음.

- 손해보험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10% 내외의 수준임.
 -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에서도 포르투갈(14.0%, 2011년), 프랑스(11.0%, 2011년), 스페인(9.7%, 2010년), 영국(8.2%, 2011년) 등 서유럽 국가의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은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더 높음.

1) 영국의 생명보험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은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지 않지만 20% 미만의 수준으로 추정됨.

2) 독일과 영국의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은 신계약보험료를 기준으로 집계됨.

3) 최재학(2010, 4), 「해의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 폴란드와 크로아티아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각각 2.2%, 2.7%에 불과함.

● 그러나 유럽의 손해보험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은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스페인(9.7%, 2010년), 영국(8.2%, 2011년), 이탈리아(3.5%, 2011년), 오스트리아(5.7%, 2011년), 크로아티아(2.7%, 2011년)의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이 전년에 비해 각각 0.9%p, 0.9%p, 0.2%p, 0.3%p, 0.4%p 상승하였음.

■ 향후 바젤 III와 솔벤시 II 등 자본규제 강화, 영국의 소매판매채널 개편 등으로 유럽 방카슈랑스시장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바젤 III 시행으로 유럽의 방카슈랑스 사업구조 및 상품 유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⁴⁾

- 바젤 III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보험업 겸영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가 본격화될 경우, 은행업과 보험업의 분리가 활발해지고 자회사방식에서 판매제휴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바젤 III의 유동성 규제⁵⁾가 도입될 경우, 은행은 유동자산 비중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일 가능성이 있음.

● 반면 솔벤시 II로 보험회사 요구자본 규제가 강화될 경우 보험회사는 요구자본을 줄이고자 투자형 상품(Unit-linked Policies) 판매를 확대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소매판매채널 개편(Retail Distribution Review, 이하 RDR)으로 방카슈랑스가 단기적으로 제약되겠지만 장기적으로 IFA에 비해 비용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⁶⁾

- 영국의 RDR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자문과 판매로 구분하여 자문자의 보수를 중개수수료에서 자문비로 전환하고 금융자문서비스 제공업자의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제도임.

- IFA 자격 강화로 자문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구조를 갖고 있는 은행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IE, BNP Paribas Cardif 등)

4) BNP Paribas Cardif(2012, 3), "The impacts of new European regulation on bancassurance".

5) 바젤 III의 유동성 규제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기준 및 안정자금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기준 준수를 요구하며 2015년 이후 시행될 예정임. 유동성 규제가 시행될 경우 은행은 소매예금 유치 노력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

6) 이기형·정인영(2012, 9), 「영국의 보험판매채널규제 개선 동인과 영향」, 보험연구원.